

2023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 국어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http://www.police.ac.kr>

5. <보기>의 견해에 대해 **칼 포퍼**가 제기할 만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어떤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원기둥 모양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하자. 이후 많은 시각 장애인이 똑같이 그렇게 하여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그 가설은 반증이 소용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만진 것은 코끼리 전체가 아닌 일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발상이 필요하다. 과학의 발전은 한 이론적 틀에서 다른 틀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안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작은 과제들만 겨우 해결할 수 있다. 현대 정치가 부딪친 문제들은 작은 과제들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의해 생기며, 따라서 정치는 사회 구조가 혁명적 과정을 통해 변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

- ① 과학의 이론적 틀은 하나여서 결코 바뀌지 않으며, 모든 정치적 문제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② 많은 반증이 제시된다고 해서 과학의 이론적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사회 구조가 급격히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 ③ 이전의 과학적 틀에 따른 가설들이 새로운 가설로 바뀌는 과정은 급격하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도 혁명 후에는 급격하게 바뀔 것이다.
- ④ 과학의 이론적 틀이 바뀌어도 반증을 통한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며, 혁명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독단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 ⑤ 과학의 이론적 틀은 여럿이기 때문에 어떤 틀을 택하는지가 중요하며, 정치적 문제의 해결책도 여럿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택하는지가 중요하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 뵈던 너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열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켜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리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아닌 봄을 불러 줄게
손때 수집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관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호개 : ‘승냥이’의 방언
* 불술기 : ‘기차’의 방언

(나)

조국(祖國)을 언제 떠났노,
파초(芭蕉)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南國)을 향한 **불타는** 향수(鄉愁),
너의 낮은 수녀(修女)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情熱)의 여인(女人),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네의 그 드리운 치마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 ② 독백적 어조로 자신의 상황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 ③ 장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서사적 맥락을 형성한다.
- ④ 반어의 수사적 표현으로 대상의 부정적 면모를 부각한다.
- ⑤ 대상의 과거 상황을 상상하여 대상의 현재 처지를 이해한다.

7. (가), (나)의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 : 관조적 태도
- ② (가), (나) : 공감적 태도
- ③ (가), (나) : 반성적 태도
- ④ (가) : 풍자적 태도, (나) : 숭배적 태도
- ⑤ (가) : 비관적 태도, (나) : 낙관적 태도

8. **가시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② 가을 무렵 두만강을 건넜다.
- ③ 봄이 오면 술막을 떠날 예정이다.
- ④ 자신의 처지에 냉소적이기도 하다.
- ⑤ 먼 길을 떠나 현재의 장소에 오게 되었다.

9. 맥락에 따라 시어 **불타는**을 읽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불타는’과 ‘정열(情熱)’은 모두 뜨거움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남국’의 특성이므로, ‘너’가 ‘남국’을 그리워하는 까닭을 알 수 있군.
- ② 뜨거움을 뜻하는 ‘불타는’이 ‘밤이 차다’, ‘우리의 겨울’과 대립적이므로, ‘너’는 ‘밤’과 ‘겨울’에 저항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③ ‘향수(鄉愁)’를 ‘불타는’ 것으로 설정한 데서 갈등이 연상되는데 ‘샘물’은 이를 해소해 줄 수 있으니, ‘너’가 ‘나’를 필요로 하는 까닭을 알 수 있군.
- ④ ‘불타는’은 ‘향수(鄉愁)’를 낮게 하기 위한 수단이 ‘소낙비’임을 암시하므로, ‘샘물’을 발등에 붓는 ‘나’의 행동이 ‘너’에 대한 배려를 뜻함을 알 수 있군.
- ⑤ ‘불타는’의 ‘불’은 ‘정열(情熱)’과 함께 상승적 이미지를 갖는데 이는 긍정적 가치로 볼 수 있으므로, ‘너’라는 시적 대상이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1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행위 주체는 화자이지만, ㉡의 행위 주체는 청자이다.
- ②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는 ㉠의 행위로는 멀어지지만, ㉡의 행위로는 가까워진다.
- ③ ㉠, ㉡ 모두 청자에게 행위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 ④ ㉠, ㉡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바탕으로 한다.
- ⑤ ㉠, ㉡ 모두 행위가 실현되면 현실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그중의 중요한 원인들이 되었을 것이다. —조선 사람은 외국인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 준 것은 없으나, 다만 날만 새면 자릿속에서부터 담배를 피워 문다는 것, 아침부터 술집이 번창한다는 것, 부모를 쳐들어서 내가 네 애비니 네가 내 손자니 하며 농지거리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 겨우 입을 떼어 놓은 어린애가 엇먹는 말부터 배운다는 것, 주먹 없는 입씨름에 밤을 새고 이튿날에는 대낮에야 일어난다는 것…… 그 대신에 과학지식이라고는 소꿉 꾸미기 무거워야 밥이 잘 무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을, ㉡ 외국 사람에게 실물로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선에 오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경멸할 수 있는 사실을 골고루 보고 많이 안다는 의미밖에 아니 되는 것이다.

“담바구야 담바구야…… 노이구곤 오테기루네……”
 입을 이상하게 뽀족이 내밀었다 오므렸다 하고, 젓가락으로 화롯전을 두들겨 가며 장단을 맞춰서 콧노래를 하다가 딱 그치더니,
 “애가 제일 잘 해요 우리는 온 지가 삼사 년밖에 아니 되었지만……”
 하며 병병히 앉았는 **화롯불 가져온 아이**를 가리킨다.

“응! 그래? 너는 얼마나 있었길래?”
 말담도 별로 없이 조용히 앉았는 것이 어디로 보아도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숫보기로만 생각하였던 것이, 조선 소리를 잘 한다니 조선애가 아닌가도 싶다.

“에서 아주 자라났답니다. 제 어머니가 조선 사람인데요”
 하며 담바고타령을 하던 계집애가 이때까지 하고 싶던 이야기를 겨우 하게 되었다는 듯이 입이 재게 즉시 대답하고 나서,
 “그렇지!”

하며 당자에게 얼굴을 들이댄다. 그 소리가 너무도 커당기 때문에 조소하는 것같이 들리었다. 일인 애비와 조선인 에미를 가졌다는 계집애는 히스테리컬하게 얼굴이 주홍빛이 되고 눈초리가 샅룩하여졌다. 어쩐지 조선 사람 어머니를 가진 것이 앞이 굽는다는 모양이다.

“정말 그래?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기에?”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대구에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가 간신히 쳐들면서 대답을 한다.
 “그래 어째 여기 와서 있니? 소식은 듣니?”
 왜 여기까지 와서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스운 수작이지만 나는 정색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 계집애는 생글생글하며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 그러지 않아두 누가 대구 가시는 이나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싶어두 그것도 안 되구…… 천생 언문으로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하며 이번에는 자기 신세를 조소하듯이 마음 놓고 커당게 웃는다.

“그럼 아버지하군 지금 헤져서 사는 모양이구나?”
 “그야 벌써 헤졌죠 내가 열 살 적인가, 아홉 살 적에 장기(長崎)로 갔답니다.”
 “그래 그 후에는 소식은 있니?”
 “한참 동안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 설이나 쇠고 나건 찾아가 볼 테예요”
 하며 흑흑 느끼듯이 또 한 번 어색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어느 때든지 자기의 기이한 운명을 스스로 조소하면서도 하는 수 없다는 단념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큰일을 저지르고 하도 깃구멍이 막혀서 나오는 웃음 같았다.

“이무리 조선 사람이러두 길러낸 어머니가 정다운 테지? 너의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찾아간대야 그리 반가워는 아니 할걸?”

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러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옷보다는 일본옷을 입고, 딸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조선 사람인 어머니보다는 일본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리를 지나서 ㉢어떠한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라는 타산이 앞을 서기 때문에 이별한 지가 벌써 칠팔 년이나 된다는 애비를 정처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제, 이 계집애의 팔자가 가없는 것보다도 ㉣그 에미가 한층 더 가없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리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없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돼져 버려라!’
 (가) 찾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의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찾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 우중충한 남뿔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 염상섭, 「만세전」

11.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과 관계가 약한 사건들을 병치하여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서술자는 이야기 속 이야기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중심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들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다른 인물들을 관찰하며 논평하고 있다.

12. (가)에 드러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실의에 빠진 대상을 포용하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에 좌절하는 태도
- ② 어떤 기대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대상을 일방적으로 저주하는 태도
- ③ 한심한 모습의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같이 드러내는 태도
- ④ 큰 소리로 말하고 싶지만 대상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태도
- ⑤ 무기력한 대상을 구원하려던 시도가 좌절되었을 때의 실망한 태도

13. 화롯불 가져온 아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 ② 자신이 혼혈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다.
- ③ 자신을 알보는 동료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다.
- ④ 어머니와 헤어진 상태이다.
- ⑤ 한글로 편지를 쓸 줄 모른다.

14. ㉠~㉣의 문맥적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천대를 받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
- ② ㉡: 외국 사람에게 조선인들이 실제 물건들을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
- ③ ㉢: 일본인 아버지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더 이롭다는 계산
- ④ ㉣: 그 어머니는 남편과 딸에게 모두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가없다고 생각함
- ⑤ ㉤: 무덤 같은 찾간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흐리고 침침한 램프 불빛

15.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에 드러난 ‘나’의 생각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만세전』의 제목에 쓰인 ‘만세’는 3·1운동을 가리킨다. 이 작품은 3·1운동 직전인 1918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식민지 수도 서울로의 여행을 통해 일본에서 유학하던 주인공이 본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그 다음 해에 일어난 3·1운동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후 펼쳐진 조선총독부의 억압적인 무단통치에 온 민족이 들고일어나 독립 만세를 외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은 일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자주성을 높이 드러내었다.

- ① ‘나’는 무덤 같은 환경에 지배받았던 당시 조선인들의 삶을 그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삶이라 보고 있어.
- ② 일제 총독부의 무단통치가 낳은 폐해를 목격하면서도 ‘나’는 일본에 기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 ③ ‘나’는 구습에 젖은 당시 조선인들에게서도 희망을 발견하려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간혀 있어.
- ④ 당시 조선인들을 무덤 속 구더기로 보는 ‘나’의 관점으로는 조선에서 왜 자주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 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조선인들을 경멸하는 것은 일본인들의 잘못이기에 ‘나’는 일본인들이 잘못을 깨달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만 보고 있어.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학에서 유전 물질 간의 전이는 DNA가 전사를 통해 RNA가 되며 이 RNA가 번역을 통해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형성된 단백질은 세포나 조직의 구조를 이루거나, 기능상 혹은 조절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으면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본적인 유전 물질인 DNA의 변이가 질병의 원인일 경우 RNA와 단백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유전자의 변이를 고칠 수 있다면 단백질 이상 발현이 생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비정상 유전자를 고치는 것을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데, 그중 현재 가장 발전한 것이 ㉠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시스템이다.

세균과 고세균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반복서열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크리스퍼 시스템은 면역 반응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조작하는 유전자 치료 방법으로, 2012년 엠마뉴엘 샤펜티어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비교적 다루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 <사이언스>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2000년대 초반 징크핑거 뉴클레아제가 1세대 유전자 가위로 등장했고 이후 2세대 유전자 가위로 탈렌이 등장한 바 있었으나, 기술적으로 다루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자연계에는 세균의 후천성 면역 작동 기제의 한 종류로 크리스퍼 시스템이 존재한다. 1987년 일본에서 박테리아의 유전체 분석 과정에서 특이하게 반복되는 서열이 발견되었다. 이 서열은 일정한 간격(스페이서)을 두고 반복되었는데, 당시로는 그것이 갖는 중요성이 충분히 인지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에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저렴한 가격으로 더 빠르게 유전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10여 년 동안 잊혔던 반복서열이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2002년에 세균과 고세균에서만 발견되던 이 반복서열은 크리스퍼(CRISPR)라고 명명되었다. 크리스퍼 근처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그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유전자도 발견되었으며, 이 유전자는 카스(Cas: CRISPR associated protein)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렇게 세균에서 구조적인 특징이 발견되자, 연구자들은 이 시스템의 기능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2005년에 스페이서 서열이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일부 동일하다는 여러 논문이 나왔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크리스퍼 시스템은 적응 면역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2007년 실험적으로 증명되어 <사이언스>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크리스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우선 세균 내에서 크리스퍼의 반복서열을 인식하는 트랜스활성화RNA와, 스페이서 서열과 반복서열을 포함한 크리스퍼RNA를 만든다. 만약 이전에 감염된 적이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 정보가 스페이서 서열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그 바이러스가 침입한 경우 이를 크리스퍼RNA가 인식하고, 이 반응에 맞춰 트랜스활성화RNA와 카스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공격해 절단한다. 또한 2012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엠마누엘 샤펜티어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의 연구를 통해 세균 내에 따로 존재하는 트랜스활성화RNA와 크리스퍼RNA를 하나로 이어 만든 가이드RNA에 카스 단백질을 넣으면 세균의 크리스퍼 시스템의 모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세균 내 스페이서 서열이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것과 비슷하게 스페이서 서열 대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의 서열을 넣으면 원하는 유전체를 자를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이듬해에는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에서도 이 크리스퍼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크리스퍼 시스템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유전자 교정을 통해 동식물의 생산량과 안정성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전자 드라이브, 곧 인간이 아닌 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유전자 구성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 모기 등을 멸종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 윤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유전자 치료를 통해 유전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크리스퍼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정확성 면에서 한계가 있고 유전자 변이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미래 생명 과학이 우생학적 편견 같은 잘못된 가치관과 만났을 때의 문제를 보여준 영화 <가타카>(1997)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전자 편집의 경계 기준이 단지 기술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생명 윤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6. 밑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속성들을 나열한 후, 그것을 통일된 구조로 종합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정의한 후,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한 후, 대상이 그것에 부합함을 설득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세부적인 요소를 분석한 후, 그 전체적인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⑤ 대상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후,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다.

17. 밑글에서 밝힌 사건의 순서를 바르게 파악한 것은?

<보기>

- ㉠ 세균의 유전자에 존재하는 특정한 반복 염기서열을 크리스퍼로 명명
- ㉡ 크리스퍼 시스템과 적응 면역의 관련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증명
- ㉢ 박테리아 유전체에서 일정한 스페이서를 둔 서열 발견
- ㉣ 인간의 유전자에 크리스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18. 밑글에 따를 때, ‘크리스퍼 시스템’의 핵심적인 작동 기제는? [3점]

- ① 크리스퍼RNA와 트랜스활성화RNA의 결합
- ② 가이드RNA에 의한 스페이서 서열의 절단
- ③ 트랜스활성화RNA에 의한 크리스퍼RNA의 복제
- ④ 가이드RNA와 카스에 의한 표적 염기서열 절단
- ⑤ 트랜스활성화RNA와 크리스퍼RNA에 의한 표적 염기서열의 복제

19. ㉠의 의의를 진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처리 방법이다.
- ② 고등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증명된 방법이다.
- ③ 생명 윤리 차원에서 우생학적 편견을 안고 있는 방법이다.
- ④ 식량 증산을 위한 산업적 활용의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다.
- ⑤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한 유전자 치료 방법이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사전에 따르면, '구독'은 '책이나 신문, 잡지 따위를 구입하여 읽음'으로 풀이되어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엇인가 '구독'한다고 할 때에는 주로 이 뜻을 떠올렸다. 하지만 요즘 사전에서는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 가입, 모금, (서비스) 사용'으로도 정의한다. 영어로는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실제로 구독 서비스는 소유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독 경제가 소유에서 이용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1913년 자동차 대량생산을 위해 '포드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지난 백여 년간 우리의 주된 소비 방식은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이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권이 많지 않았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단순했다. 기업은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싸고 질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소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경제 성장으로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늘면서 소유가 주는 의미는 각별해졌다. 큰 집, 고급 승용차, 고가의 보석,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 자신이 거둔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소비의 목적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도 소유는 어느 정도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소유는 소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 ㉡

책을 예로 들면, 소장 자체를 목적으로 책을 사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넓히고 정서적 풍요를 누리며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한다. 이 때문에 굳이 비싼 비용과 긴 시간의 기다림과 추가적인 보관 공간의 부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바탕이 마련된다. 소유를 하지 않더라도 구독을 통해 책을 읽는 각자의 목적이 충족될뿐더러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책과 관련된 경험이 여전히 풍부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 목적 달성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에 주목하는 경제 모델이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건네주고 소비자가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 관계가 일단 완성되는 반면, 구독은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그 관계가 지속된다. ㉢

오늘날 구독 경제가 하나의 주요한 경제 모델로서 확산된 데에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한 기술적 발전의 기여가 크다. 판매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층화된 영업소와 영업사원이 있다. 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은 일방향성이라는 소통적 특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의 욕구와 불만을 후속 판매에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 소유를 전제로 한 이러한 경제 모델은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 기술이나 콜드 체인 기술 같은 발전된 기술로 인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구독 서비스의 등장을 통해 기업이나 판매자가 소비자와 쌍방향적으로 직접 소통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특화되거나 개별화된 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적 발전 외에도 1인 세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이른바 가성비를 중시하는, 혹은 이와는 달리 가격과 관계없이 높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 세대로서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도 구독 경제의 규모를 키

우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

구독 경제는 소비 주체가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운다.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판매자는 발전할 수 있고 구독 경제 또한 성장한다. 그렇기에 판매자인 유통 회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판매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에 나선다. 구독 경제에서 충성 고객이 되는 소비자들은 흔히 '최우수 고객'으로 불린다. 그들에게는 어느 고객이 누리는 혜택에 더하여 배타적이고 고객 특화적인 추가 혜택이 주어지며 무료 혜택이 함께 부여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이러한 자격을 갖게 된 소비자는 구독료가 비싸더라도 구독 서비스에 충성한다. 판매자 또한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구독료에 비해 훨씬 비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 지출을 감수할 수 있다. 그것은 소비자의 반복된 구독에 의해 생산되는 구독 정보를 구독 서비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평가 및 예측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비자 정보까지도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진출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구독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의 계약 기간을 조건으로 한다.
- ② 구독 경제에서는 상품을 위한 비용 지불 이후에도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지속된다.
- ③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됨으로써 판매자는 특정 소비자에 특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④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 소비 경향은 구독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 ⑤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구독 서비스가 선택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값싼 구독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21. 윗글에 따를 때, 판매와 비교하여 구독 서비스가 갖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품의 독점적 사용
- ② 상품의 저렴한 가격
- ③ 상품의 높은 품질과 명성
- ④ 유통 채널의 직접성과 쌍방향성
- ⑤ 소비 수요를 고려한 상품 생산과 제공

22. 윗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래에는 소유를 목적으로 한 소비는 사라질 것이다.
- ② 구독 경제는 오늘날 경제에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 ③ 구독 서비스의 활성화는 세대 구성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구독 서비스에서는 소비자가 상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 ⑤ 소비자의 구독 정보는 해당 구독 서비스 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25. 윗글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할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없어서 그래.”라고 하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친구
- ② TV 토론에 나와 사회의 급격한 인구 감소 원인이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토론자
- ③ 전투에 앞서 부대원들에게 조국이 있어야 내가 있고 조국과 나는 한몸이라며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연설하는 부대장
- ④ 학교의 유구한 전통과 진학 성과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명문대에 합격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매주 훈시하는 교장
- 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재산을 헌납하고 종교활동에만 몰두하도록 지속적으로 세뇌하는 신흥 종교의 교주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 주로 가스라이팅의 표적이 된다.
- ② 피해자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자책한다.
- ③ 강한 권력 관계로 인해 불평등한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④ 가해자는 친밀함으로 위장된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한다.
- ⑤ 피해자의 동료들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가스라이팅의 동조자가 되기도 한다.

27.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밀감이 커지면서 권력 거리도 커지는 것
- ② 가스라이팅이 지속될수록 가스라이팅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
- ③ 가스라이팅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가스라이터에게 더 의존하는 것
- ④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수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커지는 것
- ⑤ 피해자와의 서열의 경계가 뚜렷해져서 가스라이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호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늘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죽 혼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호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내 몸의 지은 죄 뉘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롭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뉘 ㄱ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 고열(春寒苦熱)은 엇디호야 디내시며
 추일 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뉘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뉘 네와 ㄱ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 정철, 「속미인곡」

(나)

어화 괴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니옴노라
 초경(初更)도 거원디 괴 엇지 와 거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호기 구차(苟且)호 줄 알건만논
 쇼 업슨 궁가(窮家)애 헤염 만하 왓삽노라
 공호니나 갑시나 주업죽도 호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玉脂) 읍(泣)게 꾸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호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호고 큰 언약(言約) 호야거든
 ㉣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호니 사설이 어려와라
 실위(實爲) 그러호면 혈마 어이할고

- 박인로, 「누항사」

(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뭇뭇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등글등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라
 ㉥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28.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 (다) 모두 대화체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원통함의 정서가 공통된다.
- ③ (가)와 (다)는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주제를 선명히 하고 있다.
- ④ (가)에 비해 (나)는 화자의 경제적 궁핍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 ⑤ (가)에 비해 (다)는 화자가 일상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29. <보기>와 (가)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더 엇디햐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 디 삼 년(三年)이라
 연지분(臙脂粉) 잇니마는 놀 위햐야 고이 흘고
 막음의 띠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 정철, 「사미인곡」

- ① (가)는 ‘님’과의 이별을, <보기>는 ‘님’과의 재회를 그려낸다.
- ② (가)는 ‘님’에 대한 걱정을, <보기>는 화자의 현재 처지를 나타낸다.
- ③ (가)는 슬픔과 자책의 감정을, <보기>는 분노와 절망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④ (가)는 정중하고 우아한 태도를, <보기>는 경박하고 소심한 태도를 보인다.
- ⑤ (가)는 고유어와 고사성어를, <보기>는 한자어와 한시구를 주로 사용한다.

30. (나), (다)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다)는 고상한 취향이 나타나 있다.
- ② (나)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다)는 공간의 배치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였다.
- ③ (나)는 당시의 음식이 소재로 쓰였고, (다)는 가사노동의 양상이 반영되어 있다.
- ④ (나)는 상징적, 역설적인 표현을, (다)는 감각적, 직설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 ⑤ (나)는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 (다)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서사적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31. ㉠,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화자의 내면적 욕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② 상대의 생각과 태도를 비판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상대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기능을 한다.
- ④ 시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상대의 발화를 이끌어내어 주제가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한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② ㉣: 화자가 예전에 ‘님’을 모신 적이 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 화자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⑤ ㉤: 자녀 양육과 시집살이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란이 말했다.

“듣자 하니 특재라는 자객이 사람 죽이는 것을 주머니 속에서 물건 꺼내듯 한다고 하옵니다. 그에게 많은 돈을 주어 밤에 들어가 길동을 해하게 하면, 상공이 아신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사오리니 부인은 다시 생각하소서.”

부인과 좌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는 차마 못 할 바이나,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요, 셋째는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너의 계교대로 행하라.”

초란이 크게 기뻐하며 다시 특재를 불러 이 말을 자세히 이르고 오늘 밤으로 급히 행하라 하니, 특재가 응낙하고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길동은 그 원통한 일을 생각하면 잠시도 머물지 못할 일이지만 상공의 엄명이 중하므로 어찌할 길이 없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주역』을 보며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들으니 까마귀가 세 번 울고 가는 것이었다. 길동이 괴이하게 여겨 혼자 말하기를,

“이 짐승은 본디 밤을 꺼리거늘 지금 울고 가니 심히 불길하도다.”

하고, 잠깐 팔괘를 벌여 점을 쳐 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물리고 둔갑법을 행하여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경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진언을 외우니, 홀연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며 집은 간데없고 ㉠ 첩첩산중(疊疊山中)에 풍경이 거룩했다. 특재가 크게 놀라 길동의 조화가 신기함을 알고 비수를 감추고 피하고자 하니, 갑자기 길이 끊어지고 층암절벽이 앞을 가리니 ㉡ 진퇴유곡(進退維谷)이었다. 사방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문득 피리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기를 그치고 꾸짖었다.

“네 무슨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죄 없는 사람을 해하면 어찌 하늘의 재앙이 없으리오?”

소년이 진언을 외우니 홀연 한바탕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돌이 날렸다. 특재가 정신을 수습하고 살펴보니 길동이였다. 비록 그 재주를 신기하게 여기나 ‘어찌 나를 대적하리오?’ 하고 달려들며 큰소리로 말했다.

㉢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초란이가 무녀, 관상녀와 함께 상공과 의논하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리오?”

특재가 칼을 들고 달려드니 길동이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 요술로 특재의 칼을 빼앗아 들고 크게 꾸짖었다.

“네 재물을 탐하여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을 죽여 후환을 없애리라.”

길동이 한번 칼을 드니 특재의 머리가 방 가운데로 떨어졌다.

길동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그날 밤 바로 관상녀를 잡아 특채가 죽은 방에 들이밀고 꾸짖기를,

“네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초란과 더불어 나를 죽이려 했느냐?” 하고 칼로 베니, 어찌 가련하지 않으리오.

- 허균, 「홍길동전」

(나)

일귀 왈,

“적실히 그러하면 유심의 집을 함몰하여 후환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하노라.”

한담이 옳다 하고, 그 날 삼경에 가만히 승상부에 나와 나졸 십여 명을 차출하여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화약 염초를 갖추어 그 집 사방에 묻어 놓고 화심에 불붙여 일시에 불을 놓으라고 약속을 정하니라.

이때에 장 부인이 유 주부를 이별하고 충렬을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날 밤 삼경에 홀연히 곤하여 침석에 졸더니 어떠한 한 노인이 홍선(紅扇) 일 병을 가지고 와서 부인을 주며 왈,

“이날 밤 삼경에 대변이 있을 것이니 이 부채를 가졌다가 화광이 일어나거든 부채를 흔들면서 후원 담장 밑에 은신하였다가 충렬만 데리고 인적이 그친 후에 남천(南天)을 바라보고 가없이 도망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옥황께서 주신 아들이 화광 중에 고훈이 되리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놀라 깨어 보니 ㉠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충렬이 잠이 깊이 들어 있고 과연 홍선 한 자루 금침 위에 놓였거늘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깨워 앉히고 안절부절하며 잠도 못 자던 차에, 삼경이 당하매 ㉡ 일진광풍(一陣狂風)이 일어나며 난데없는 천불이 사면으로 일어나니 웅장한 고루거각이 일시에 무너지고 전후에 쌓인 세간 ㉢ 추풍낙엽(秋風落葉) 되었도다. 부인이 창황 중에 충렬의 손을 잡고 홍선을 흔들면서 담장 밑에 은신하니, 화광이 충천하고 재만 땅에 가득하니 구산(丘山)같이 쌓인 기물 화광에 소멸하였으니 어찌 아니 망극하라.

사경이 당하매 인적이 고요하고 다만 중문 밖에 두 군사가 지키거늘 문으로 못 가고 담장 밑에 배회하더니, 어슴푸레한 달빛 속으로 두루 살펴보니 중중(重重)한 담장 안에 나갈 길이 없었다. 다만 물 가는 수춧구멍이 보이거늘 충렬의 옷을 잡고 그 구멍에 머리를 넣고 복지(伏地)하여 나올 제, ㉣ 겹겹이 싸인 담장 수채로 다 지나 중문 밖에 나서니 충렬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 돌에 긁히어서 백옥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 진흙빛이 되었으니,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감한다.

- 작자 미상, 「유충렬전」

33. (가), (나)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적대자 측이 주인공의 부모 상봉을 방해한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주인공 측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자가 나타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주인공 측과 적대자 측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④ (가)는 주인공의 내면적 고뇌, (나)는 주인공의 행동과 태도가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 ⑤ (가)는 적대자 측의 주인공 측에 대한 공격, (나)는 주인공 측의 적대자 측에 대한 포용이 나타난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의 사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영웅 소설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이루어진 소설들을 말한다. ‘고귀한 혈통—비정상적인 출생—비범한 능력—어릴 때 버려짐—구출 및 양육자의 도움—성장 후의 위기—승리와 성공’의 서사적 구조로 짜여 있다.

- ① 영웅이 애초에 고귀한 혈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 ② 영웅이 당하는 고난의 동기가 비정상적인 출생에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 ③ 비범한 능력의 영웅이 고난 중에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과정이다.
- ④ 영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보조 인물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과정이다.
- ⑤ 최종의 성공에 이르기 위해 영웅이 역경에 처하여 고난을 겪는 과정이다.

35.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특채의 재물 욕심을 꾸짖는 이유가 되었다.
- ② 특채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댄 것이다.
- ③ 특채가 이전의 상황에 거짓을 덧붙여 말한 것이다.
- ④ 특채와 길동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중에 나온 말이다.
- ⑤ 이후에 길동이 하는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이 당하는 고난의 과정을 강조하여 그리고 있다.
- ② 사건 전개상 이후의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이 들어 있다.
- ③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 있다.
- ④ 평상시의 모습에 대조하여 인물의 현재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독자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37.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 ②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
- ③ ㉤: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듯이 종잡을 수 없는 말
- ④ ㉠: 한바탕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
- ⑤ ㉡: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애가 오로지 의료나 복지의 문제로만 취급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를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로 재공식화하는 작업은 19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장애인과 장애 단체들은 여러 문제 중에서도 특히 거주 시설로의 수용,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 강요된 빈곤 등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화하여 운동하였다. 이러한 ㉠ 장애인 운동은 다시 장애에 대한 급진적이고 새로운 개념을 낳았다. 장애는 손상을 지닌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 활동의 주류로부터 배제하는, 당대의 사회 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하는 활동의 제한과 수많은 불리함이 손상 자체에서 야기된 것보다는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결과로 간주되어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열렸다. 의료적, 복지주의적 담론들 내의 장애 개념에 대해 ㉡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가 사회 제도의 결과라는 ㉢ 사회적 모델론의 개념은 장애학의 중심 사상이 되었다.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 운동에 공감하는 장애 단체들을 불러 모으는 호각(號角)이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모델을 접했을 때 그 효과는 계시적이고 해방적이었으며, 그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초래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주거, 교육, 고용, 교통, 문화·여가 활동, 보건·복지 서비스,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만들어 내는 장벽들이 시야에 들어와 장애인 운동이 다면화되었다.

당대의 사회 구조와 관행에 의해 부과된 활동의 제한으로서 장애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 답은 산업 자본주의의 등장에 있다. 영국에서 18세기 말부터 임노동 관계가 점점 더 대규모 산업과 연결되면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경제 활동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다. 공장의 장시간 노동에 표준화된 숙련도·속도·강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들 중 다수는 노동력을 팔 수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점점 더 의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일반화된 상품 생산 경제에서 배제되었다. 19세기 동안 대규모 산업이 소규모 매뉴팩처와 소상품 생산을 잠식함에 따라 그들의 의존성은 공고화되었다. 20세기에 장애인들이 경험했던 배제와 의존성은 자본주의의 초기에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비생산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강등되었던 사실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모델론은 장애가 초역사적이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회 현상이 아니며, 특정한 역사적 시점의 사회적 관계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장애란 언제나 어떤 유형의 '제한된 활동'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을 넘어서 공간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다르게 자리매김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모델론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의 변화된 양상들을 다룰 수 있도록 이론적 분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 또는 초자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경제 제도들이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근래에 들어 사회적 모델론은 그 자신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코커는 사회적 모델이 견지하는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행위 주체성이 누락되고, 담론은 사회 구조의 부수적 효과로 간주되기 때문

에, 행위 주체성도 담론도 사회 변화를 위한 초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보다 ㉣ 손상을 지닌 사람들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 문화적 인식들이 장애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들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속성화된 신체적·행동적 차이를 지닌 사람들을 제약하고, 무력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위치시키며, 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사회적 모델론자들은 손상을 지닌 삶에 대한 개인적 경험은 장애학의 관심사가 아니며, 지적이고 정치적인 에너지는 장애의 좀 더 넓은 사회적 원인들을 다루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상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첫째, 사회적 모델이 손상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의 영역으로 격하한 것은, 공적·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사적인 것을 분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손상의 경험은 장애의 정치와 장애학 내에서 논의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와 손상 간의 구별이 본질주의적·이원론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손상과 장애는 모두 담론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범주이고, 그중 손상은 생물학적 실재와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않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구성 개념이다. 셋째, 몸을 자체적 동력이 없는 물질적인 대상, 자아와 분리된 것으로 다룸으로써 손상을 생물학적 영역으로 격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손상에 대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손상의 사회학, 몸의 사회학을 추구한다.

38.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70년대 이전에는 장애를 의료와 복지의 문제로 취급하였다.
- ② 사회적 모델론은 손상의 체험이 지닌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비판받았다.
- ③ 사회적 모델론은 인간의 행위 주체성이 누락되었다는 이유에서 비판받았다.
- ④ 사회적 모델론은 초기 자본주의가 장애에 끼친 영향을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 ⑤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9. <보기>의 관점에 대한 ㉠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료적 모델의 관점은 장애를 손상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손상을 치료하거나 개선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장애는 개인적 문제로 간주되고, 장애인이 사회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가에게 권한과 영향력이 부여된다.

- ① 장애는 손상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 ② 장애는 사회 제도에 의한 제약이다.
- ③ 장애는 손상 자체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 ④ 장애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나타난 결과이다.
- ⑤ 장애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40. <보기>를 ㉠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애 보조 기술이나 보조 장치에는 장애를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것들이 많다. 시각 장애는 흰 지팡이를 사용할 때 더 드러난다. 발달 장애 혹은 자폐가 있는 사람이 사진이나 그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쓴다면 장애는 더 드러날 것이다. 이처럼 기술이나 장치의 사용으로 숨겨져 있던 장애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장애의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조 기술 낙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이 보조 기술 사용을 꺼리거나 아예 거부하기도 한다.

- ① 장애를 구성하는 데 사회 문화적 인식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신체적·행동적 차이가 드러나기에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③ 기술의 발달은 장애인을 사회적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 ④ 보조 기술 낙인은 장애에 대한 일종의 사회 문화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 ⑤ 보조 기술 낙인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

41. ㉠과 ㉡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계기적 관계이다.
- ② 양쪽의 논리가 충돌하는 상호 모순적 관계이다.
- ③ 지향하는 목적이 상반되는 상호 대척적 관계이다.
- ④ 각각의 결점을 서로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 ⑤ 서로의 개념과 활동을 한정하는 상호 규정적 관계이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굴 입구가 무너져 두 사람이 갇혔는데 산소가 모자란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한 방안은 1)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2) 그냥 있거나, 3)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다. 이 세 방안은 다른 윤리적 입장을 드러낸다. 2)는 피동적으로 운명에 맡기는 운명주의의 입장이지만, 사람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1)이나 3)을 시도할 것이다. 이때 1)은 ㉠ 윤리적 이기주의로, 3)은 ㉡ 윤리적 이타주의로 부른다.

윤리적 이타주의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부하를 구한 경우가 전형적 사례이다. 이는 성인(聖人)의 경지라고 하겠지만, 가족을 위할 때나 익명으로 기부할 때처럼 평범한 이들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 이타주의를 모두가 행할 수는 없으며, 설혹 타인을 위하러 해도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이 타인을 위한 행위가 되는지 모를 수 있고, 적절한 행위가 떠오른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행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실현성에서 윤리적 이타주의는 큰 난점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윤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이 본능적인 이기심을 가진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인간은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도록 동기 부여된 존재이며 타인을 위한 동기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을 ㉢ 심리적 이기주의라고 한다. 윤리적 이기주의자들은 자신의 입장이 심리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심리적 이기주의가 타당하다면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윤리 규범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가)

‘이기심’이라는 용어에 대해 인간의 심리적 동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심리적 동기는 여섯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1)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적 동기, 2)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 동기, 3)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같이 고려하는 합리적 동기, 4) 타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타적 동기, 5) 자신과 타인의 이익 대신 오로지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을 고려하는 의무적 동기, 6) 마음의 유덕한 성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유덕한 동기이다.

심리적 이기주의는 이 가운데 2)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1)과 3)은 2)의 변형이며, 특히 3)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일 것으로 본다. 여기에 4), 5), 6)까지 불가능해야 심리적 이기주의가 타당하게 될 것인데, 5)와 6)에 대해서는 그 이면에 자기 이익이라는 동기가 반드시 숨어 있을 것이므로 2)와 같다고 보며, 4)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4)에 따른 행위가 실제로 있다는 반박에 대해 또 다른 해명을 시도한다. 4)는 겉으로는 이타적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심리적 자기만족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기에 결국 2)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또 다른 반박이 가능하다. 그러한 해명은 타인을 속이거나 무시하여 정당한 몫 이상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기적이라는 말의 뜻을 ‘고상한 욕구 만족’이라는 뜻으로 슬쩍 대체하여 4)를 2)인 것처럼 보이게 한 궤변이라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심리적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윤리적 이기주의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게 된다. 그러나 윤리적 이타주의로 되돌아가도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없다면, 실현성 있는 윤리적 이기주의를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죄수의 딜레마’로 불리는 실험이 있다. 이는 공범 관계의 두 혐의자에게 범죄를 먼저 자백한 사람은 바로 석방하지만 남은 사람에게서는 5년의 형량을 부과하며,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3년을 부과한다고 제안하는 사고 실험이다. 이때 두 사람 각각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동료 배신하고 먼저 자백하는 것인데, 이는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기 쉽지만 윤리적 이기주의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배신의 선택이 가장 나올까? 플러드와 드레셔는 이 같은 유형의 실험을 반복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배신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기심이 맹목적으로 지금 당장 자신만 위하게끔 하는 경향 외에 무엇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 될 것인지 고려하면서 타인과 협력하거나 상호부조를 하게끔 하는 합리적인 경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윤리적 이기주의는 좀 더 큰 안목의 합리적인 경향으로 이기심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 ‘합리적인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이는 이기심을 긍정하는 윤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4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리 규범은 인간의 심리적 사실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 ② 인간은 이기심을 통하여 타인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 ③ 이기심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 ④ 어떤 행위를 해야 타인의 이익이 될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
- ⑤ 성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은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43. <보기>의 관점에서 ㉠이 ㉡을 평가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칸트는 윤리 규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으로 '당위 가능 원칙'을 들었다. 이 원칙에서 '당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뜻하며, '가능'은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곧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 해도 실천할 수 있어야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이타적인 행위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면 ㉡은 규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 ② 이타적인 행위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실천할 수 없기에 ㉡은 규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 ③ 이기적인 행위에도 이타적인 동기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은 규범으로 성립할 수 없다.
- ④ 이기적인 행위든 이타적인 행위든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이기에 ㉡처럼 규범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 ⑤ 이타적인 행위는 이기적인 행위와 관계없이 인간이 당연히 행해야 할 덕목이므로 ㉡처럼 규범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44. <보기>는 (가)에 제시된 동기들의 사례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한 ㉢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악의적 동기: 재판에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거짓 증언을 함
- ㉡ 합리적 동기: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놀이 공원에 가고자 함
- ㉢ 이타적 동기: 연인과 헤어진 동료에게 위로차 식사를 대접하고자 함
- ㉣ 의무적 동기: 말기 암 환자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
- ㉤ 유덕한 동기: 길거리에 쓰러진 할머니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돕고자 함

- ① ㉠: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림으로써 얻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 ② ㉡: 자신의 즐거움이라는 이익을 보려 한 것이 우선일 것이며, 친구의 즐거움은 부수적일 것이다.
- ③ ㉢: 동료에게 자신이 인간적임을 드러내는 만족감을 느끼려 했을 것이다.
- ④ ㉣: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환자에게 죽음에 대비할 시간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 ⑤ ㉤: 할머니를 돕는 데 드는 노력과 시간보다 할머니를 외면함으로써 받을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을 것이다.

45. ㉢의 입장에서 <보기>의 '그'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는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하며, 다른 사람들도 차를 운전한다. 그는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통 규칙을 지키면서도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데에 관심을 쏟으면서 운전한다. 결국 그는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한다.

- ① '그'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믿었으니까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 거야.
- ② 원래부터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게끔 예정된 운명이었으니까 '그'가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야.
- ③ '그'가 목적지에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한 것이 의도치 않게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 거야.
- ④ 다른 운전자들을 의식하더라도 사정이 그다지 바뀌는 것은 없기에 '그'만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야.
- ⑤ '그'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폐가 될까 걱정해서 안전하게 운전했으니까 사고가 난 것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익을 거둔 거야.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